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동원 제05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6년 7월 1일 발행인 : 정민기 인건개발연구원(KHI) 주소 : 136-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di.or.kr 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6323

21세기는 전문경영인시대 희생과 솔선수범으로 '함께 가는' 조직 만들어야

머릿글 前 연합뉴스 논설고문 서옥식
7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세일
커버스토리 동원시스템즈(주) 부회장 서두칠

특별기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재일
지자체특강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안덕현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성근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리더십이야기

회원광장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상임대표 임정희
조순칼럼

표지인물 서두칠 동원시스템즈(주) 부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6 July

7

대성그룹 창립 1947



S 라인콘덴싱 새기술이 가스비를 잡았다



올해는 시끄러운
가스비 도둑을 잡자!

유럽 특허출원

유럽안전규격 CE인증 획득

2005년 에너지 워너상 수상

 **대성셀틱** 가스보일러

콜센터(구입및문의) 1588-8577(바로척척) www.celtic.co.kr

21세기 경쟁은 시스템이 아니라 CEO들간의 리더십 경쟁

서옥식 前 연합뉴스 논설고문

지난 반세기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본 영화는 1952년에 제작된 게리 쿠퍼,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정통 서부극 '하이 눈(High Noon, 정오의 결투)'으로 보도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소 20번이나 이 영화를 감상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 번, 현 부시 대통령도 취임 후 이 정통 웨스턴을 다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3년 8월 미국 케이블 채널 '브라보'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영화들(All the Presidents' Films)'에 따르면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카사블랑카', 윌리엄 홀든의 '콰이강의 다리', 오드리 헵번의 '사브리나'와 '로마의 휴일'도 대통령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단연 인기 1위는 프레드 진네만 감독의 '하이 눈'이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무엇이 이처럼 세계 최강국 대통령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 아마도 이 영화의 주인공인 보안관 케인(게리 쿠퍼 분)이 이들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많은 시사(示)를 던져 준 게 분명하다.

이야기는 1870년 서부의 작은 마을 '헤이들리빌'의 어느 일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다. 5년간의 임기를 끝낸 보안관 케인은 에이미(그레이스 켈리 분)와 막 결혼식을 올리고 정든 고장을 떠나려 한다. 그 때 5년 전 이 마을에서 체포됐던 흉악범 밀러가 형기를 마치고 일당 3명과 함께 복수를 하기 위해 열차편으로 정오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곧 정오였다. 케인은 이 흉악범들과 대결코자 우군을 모으기 위해 후임 보안관과 치안판사, 촌장(村長), 교회목사를 찾아갔으나 승산이 없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당하고 만다. 태번(술집) 여주인도 마을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떠나갔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케인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케인은 유서를 써 놓고 죽은 듯이 텅 빈 거리로 나선다. 햇벌이 이글이글 내리 쬐는 황야에 험상궂은 무법자들이 모여든다. 숨막히는 총격전이 벌어진다. 악당들과의 결투를 승리로 끝낸 케인은 보안관 배지를 땅바닥에 집어던진 후 에이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주민들을 뒤로한 채 홀연히 마을을 떠난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을 정확히 실시간에 일치시킨 최초의 영화다. 상영 시간은 1시간 24분이며, 영화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도 10시

40분부터 12시 4분까지다. 이러한 시도는 서스펜스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게리 쿠퍼와 그레이스 켈리라는 당대 명배우들의 매력, 적막을 깨뜨리는 시계바늘 소리와 함께 시간이 정오로 다가갈수록 고조되는 긴장감, 텅 빈 거리에 혼자 숨막히는 결투에 나서는 장면 등 예리한 리얼리티가 돋보이는 영화다. 죽음을 예감하며 갓 결혼한 신부마저 떠나보낸 채 유서를 쓰는 케인의 비장함, 몸을 사리는 주민들의 이

기주의, 죽으면 개죽음이고 살아도 얻을 게 없는 싸움. 이 영화는 고립무원의 위기상황에 처한 한 인간의 고뇌에 찬 결단, 진정한 용기와 자기희생을 보여준다. 대통령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테마다. 케인이 보여준 것은 바로 위기에 처한 지도자의 자질이자 덕목이었다.

21세기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이며, 그 중심화두는 무한경쟁(mega-competition)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무한경쟁으로 인한 '위기의 일상화 시대'에는 잔잔한 호수에서 구령을 외치며 조정정기를 하는 식의 '관리형 리더십'이 아니라 계곡에서 보트를 타고 급류를 헤쳐 나가는 '위기 극복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조직 내 모든 전략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위기 극복의 총수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의 일상화 시대'에는 경쟁의 성격이 시스템간의 경쟁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간 즉, CEO간의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 국가와 사회, 기업 등 모든 조직의 시스템 원리와 기능은 점점 보편화되고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IMF 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1997년 12월 12일자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됐다. 현재 한국의 리더십은 달리보다 고갈돼 있다"라고 뼈아픈 평가를 내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人間**



서옥식 前 고문

1944년 생 /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경계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 동아닷컴파원, 외신1부장, 북한부장, 편집국장, 논설고문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 /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현대정치발전연구원 부설 현대아카데미 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호남대 초빙교수 / 성결대, 숭실대, 경계대 외래교수

7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김홍식 前 전남 장성군 군수

광주사범학교 졸업 /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광주 동신중·고등학교 서무과장 / 전라남도 내무국 서무과 / 장성군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 (주)일진 상무, 전무이사, 부사장 / (주)두양 대표이사 / 전라남도 교육위원 / 전남 장성군 민선1~3대 군수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이야기

1460회 7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1995년 6월,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시작으로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체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됐다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이 흐르고,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는 등 지자체의 위상이 크게 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무관심과 지역간 이기주의, 중앙정부의 권력집중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는 모토로 전남 장성군의 행정을 이끈 김홍식 군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역할모델로 주목받는 케이스다. 김 전 군수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세 번을 연임하는 동안 인구 5만의 장성군은 작은 농촌 고장에서 전국 지자체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모여드는 가장 성공한 지자체로 성장하였다. 이는 '주식회사 장성군'을 표방하며 스스로 장성군의 최고경영자(CEO)가 되고, 공무원은 회사 임직원으로 군민을 주주나 소비자로 모신다는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지난 6월로 3선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홍식 전 장성군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통해 일구어낸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작되는 민선 4기 지방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건일 중국 길림시 시장

길림공업대학 졸업 / 길림성 자동차공학학회 회장 / 중국 자동차공학학회 부이사장 / 장춘시 과학기술협회 부주석 / 길림성 과학기술협회 부주석 / 중국 디젤엔진공업협회 부이사장 / 길림성 기계공학협회 부이사장 / 중국 기계공학학회 부이사장 / 길림성 상표관리협회 부이사장 / 중화상표관리협회 부이사장 / 길림성 성장보좌

한중경제협력과 동반성장 방안

1461회 7월 1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시장을 활용해 한중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는 200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재투자와 확장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오랜 경제무역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길림성, 그 중에서도 16만의 조선족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길림시는 최근 새로운 투자 대상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이다. 길림시는 길림성 제2의 도시로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기초가 튼튼하며 도시시설과 투자환경이 우월해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무엇보다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깊다. 길림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 투자유치 목표의 94%를 달성했으며, 2005년 8월 <포브스> 중문판은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기 가장 적합한 도시의 순위를 발표하면서 길림시를 1위에 선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길림시 서건일(徐健一)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경제무역대표단이 한국의 기업을 방문하고 길림시 투자에 관한 논의를 위해 12일 방한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길림시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서건일 시장을 초빙하여 길림시의 기업환경과 투자유치전략을 들어보고, 한중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제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1987년 중앙일보 입사 /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부 기자 / 중앙일보 기획취재부 기자 /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부 차장대우 / 중앙일보 기획취재팀 차장대우 /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부 차장 / 美 워싱턴 조지타운대 연수 / 美 국무성 초청 연수프로그램 참여 / 한미 기자교류프로그램 참여 / 중국문화기행 취재 / DJP 워커히 킴비회동 특종취재 <저서> 성공한 권력

전영기 기자의 2007년 대선 예측모델

1462회 7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집권확률(Power)은 선거의 전략(Strategic)과 인간적 능력(Human Ability)과 정치적 환경(Environment)의 함수다. 즉 후보자와 그의 전략과 선거환경이 2007년 12월의 대선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함수식으로 쓰자면 $P=f(S, H, E)$ 라고 할 수 있겠다.

동서고금의 인간사가 그렇듯이 집권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인간과 환경이 능동적으로 서로 개입하고 변형하는 프로세스가 '전략'이다. 전략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환경이 전략을 변경하기도 한다. 집권확률의 변수 중 잘 변하지 않아 관찰이 비교적 용이한 게 H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인간적 능력(H)만을 바탕으로(전략과 환경 변수는 제외) 각각의 집권가능 점수를 계산해 봤다. 지방선거 전에 한 계산인데 미세한 차이로 박근혜 > 이명박 > 정동영 > 손학규 = 김근태 > 고건 순이었다.

우리가 차기 대통령을 미리 알아 맞추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대통령은 그 자체가 시대정신이고 당시 국민의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좋은 시대정신, 좋은 국민의 가치관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2007년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가치관은 지난 10년의 정세 상태를 돌파하겠다는 '성장'과 '통합'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 정신과 가치관을 자기의 삶 속에 구현한 인물이 2007년 대선 승자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년 가까운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정치부에서 보낸 전영기 기자를 초빙하여 그가 개발한 '대선 승자 예측모델'과 '차기 대통령이 열어 젖혀야 할 과학의 시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

전북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박사 /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법제처 사무관, 법제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감찰위원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사무총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 / 동국대 겸임교수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21세기 비즈니스포럼 공동대표 <저서>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총람, 헌법등대지기(수필집) 외

헌법의 정신과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

1463회 7월 2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의 보장, 근로자의 사회적 지회향상을 위한 노동3권,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등의 사회적 기본권 내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은 생활관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국민 생활의 상향적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절대적, 산술적 의미의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다. 즉 '자유 대신에 평등'이 아닌 '자유 속의 평등'을 추구한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경쟁의 결과 뒤쳐진 계층을 끌어 올려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혁정책 방향은 국민의 구체적 삶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실용주의적 개혁이어야 하며, 그 개혁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국민통합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년 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를 초빙하여 헌법의 정신과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을 들어 보고 국민 개개인과 기업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대한민국 선진화, 비전과 전략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건국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 거쳐 21세기에는 선진국 진입이 국가목표 되어야

개인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가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난 60년간을 돌이켜 보면 몇 번의 시대적 과제를 푸는 큰 발전단계가 있었다. 해방 후 45년부터 50년대는 건국이 그 시대의 과제였고 국가의 목표였다. 우리는 해방 후 혼란과 6.25 등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60~70년대는 산업화가 시대적 과제였고 국가적 목표였다. 1963년 1인당 국민소득 1백 불이었던 우리나라는 1995년에 1만 불을 달성했다. 인류역사상 이처럼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그 후 우리는 80~90년대에 민주화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부

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여하튼 지난 60년간 우리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분명히 빛나는 승리와 성공의 역사였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국가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명실공히 세계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선진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건국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 이제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

소득 3만 불, 세계화와 자유화 개혁 이루는 경제적 선진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수준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이다. 앞으로 15년 안에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0년 후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재정부담도 증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 오는 중국과 인도의 저임



금, 고품질과 경쟁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갭이 점점 커지는 과학기술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고, 기술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도 염려된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경제성장률이다. 미래 경제성장률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율을 보면 1990년대 전반 연평균 투자율이 매년 10%씩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를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연평균 투자율이 1.1%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듯 낮아지는 투자율은 다시 말해 미래성장률을 높

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가? 정치와 정책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경제선진국이 되려면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해야 되고 크게 두 가지 부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아닌 세계화 개혁과 자유화 개혁이다.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문화에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빠르게 바꿔 나가는 것이 세계화 개혁이다. 두 번째는 경제사회 각 부문에 자유화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화 개혁과 자유화 개혁을 각 시스템에 진행시킴으로써 높은 투자증가율과 더불어 경제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선진국의 첫째 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정치적 선진국

선진국의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정치적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 선진국이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는 성공했지만 자유주의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과제이다. 민주주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정부를 바꿀 수 있다. 반면 자유주의는 정부의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자유주의를 위해서는 분권화도 필요하고 삼권분립도 필요하다. 독립적인 사법부도 필요하고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인 공무원도 필요하다. 이런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선택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의 자유주의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와 결합되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후진국은 제도로서 먼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자유주의의 역사 또한 대단히 짧다. 그래서 사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이후에 자유주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실험을 받고 있다.

민주화는 국민에 의한 지배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다. 표현을 달리하면 권력의 하반이동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전통이 약한 나라가 민주화과정을 거칠 때 등장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일부 선동가에 의한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이다. 인기영합주의가 자행될 때 나타나는 것이 중우정치이다. 그리고 그것이 심한 경우엔 폭민정치가 나타난다. 그 다음 단계는 무정부로 가든가 새로운 독재의 등장이다. 독재가 등장하면 그것이 좌파적 독재이든 우파적 독재이든 상관없이 다시 새로운 민주화투쟁이 시작된다. 민주화투쟁이 절대적 권력을 타도한 다음에는 또다시 포퓰리즘이 등장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많은 후진국에서 겪는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준중사상과 입헌주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 둘째, 권력을 견제하는 법치가 확실하게 서야 한다. 셋째, 사법부가 명실공히 독립되어야 한다.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론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여론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다.

품격있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하는 사회적 선진국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적 의미에서도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품격있고 따뜻한 공동체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선진국의 기본은 가족의 가치를 재창조하는데 있다. 가족이라는 조그만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복원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가정과 학교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 나아가 이웃공동체로 확대되는 노력이 많이 해야만 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기본적으로 후진국적인 현상이다. 잘 알다시피 선진국은 자원봉사가 대단히 생활화되었다. 미국의 20세 이상 성인들의 과반수가 주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다. 시간제 임금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주 4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미국에는 작은 자원봉사 조직들이 약 140만개가 있다. 나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처럼 사회적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적 문화표준을 만들어 가는 문화적 선진국

사회적 선진국 다음으로는 문화적 선진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이 우리 일상의 삶과 일체화되는 것이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비교적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적인 장점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이웃문화와 조화롭게 퓨전 시켜 아시아적 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 문화표준을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부민덕국(富民德國)에 힘쓰는 국제적 선진국

국제적 의미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나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면 선진국 또한 될 수 없다. 내가 쓴 책에 부민덕국(富民德國,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있는 나라)이라는 표현이 있다. 백성이 잘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부유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많이 이야기했다. 산업화와 근대화 시대에는 부국강병이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지금은 부민덕국에 힘써야 한다. 백성이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는 덕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덕은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발전과 인류의 보편적 역사발전에서 과연 무엇을 기여해 주고 있는 나라인가?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어떠하며, 그 동안 세계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기여했는지에 대해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년 안에 선진화 못 이루면 후진국 전락할 수도 대한민국의 선진화 걸림돌 세 가지

앞으로 15년 안에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없다. 15년에 안 된다면 중진국으로 남든가 후진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문제까지 풀고 넘어가야 되는 엄청난 과제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을 풀고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모두가 뚝뚝 뭉쳐서 명백한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재도약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세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잘못된 사상이 지금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상전쟁을 통해서 올바른 사상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어렵다. 신채호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결정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일각에 존재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첫째는 우리사회에 수정주의적, 좌파적 역사관이 있다는 것이다. 좌파적 역사관을 가진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웠기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나라라고 본다. 그리고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산업화에 대해서도 이들은 산업화를 외국 자본과 결탁해서 노동자 착취에 기초한 신식민지적인 매판경제라고 보고 있다.

인간은 결국 역사공동체 속에 존재한다. 개인의 존재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데 자신의 역사적 공동체가 파괴될 때에 그 사회의 도덕은 깨지고 개인의 정체성 또한 깨지고 만다.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서 온다고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스스로 파괴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어디서 애국심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국가품격을 올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우리사회의 잘못된 생각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결과평등주의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과도한 반기업, 반부자 정서가 있다. 이것이 전부 결과평등주의와 관련이 있다. 평등주의적인 사고가 한 쪽으로는 반기업적인 정서로 나가고 또 한쪽으로는 반시장주의로 나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반지성주의로 나간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소위 교육의 평등주의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대학까지 평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고민은 세계 최고의 우수 대학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대학의 문제가 서울대가 지방대학보다 너무 앞섰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수정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만들고 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고쳐야 될 잘못된 사고 중에 가장 큰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화는 성공하겠지만 자유화는 실패할 수 있다. 더불어 선진국에 절대 진입할 수 없다. 해방 이후 가장 큰 포퓰리즘 정책이 수도이전이라고 생각한다. 수도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결정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헌법을 고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국회에서 과반수 통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엔 12개 부처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각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17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왔다. 결국 각 지역에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우리사회에는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 특히 정치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을 바르게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워서는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심 없이 국익과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제일 과제이다. 두 번째는 비전과 정책능력 즉, 국정운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선공후사가 안 되고 비전과 정책능력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포퓰리즘이다. 그것이 이벤트정치이고 책임회피이고 말장난이고 폭로정치이며 구호정치로 가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고 좌절시킨다. 셋째, 국제적 감각과 경륜이 있어야 한다. 국가운영의 반은 해외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 그것은 외교일수도 교역일수도 아니면 문화일수도 있다.

셋째, 국내정책뿐만 아니라 올바른 세계전략이 아직 없다. 이는 대

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가져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민과 관이 합심해 '세계전략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루어야 될 강대국을 강대국의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천수이벤 대만 총통이 야당 지도자였을 당시 워싱턴에 정책로비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책로비그룹을 통해서 야당의 정책을 워싱턴 정가에 알리고 또 워싱턴의 대 중국, 대

대만정책의 변화와 누가 정책을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당도, 하물며 정부조차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국가경영을 한다면 적어도 워싱턴, 동경, 북경 등에 그쪽의 정책결정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략을 짜야 한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비교적 평화스러웠던 것은 미국, 중국,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안정과 평화가 있었다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삼각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동북아의 단일패권을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선진화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지금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화가 시대적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는 아직 선진화의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 더불어 선진화 정당이 필요하다. 선진화를 자신들의 목표로 생각하고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헌신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여당은 낡은 이념의 멍에 잡혀 있다. 야당 또한 아직도 작은 이익의 멍에 잡혀 있다. 여기에 여야를 불문하고 포퓰리즘이 존재하고 지역구도가 쌓이고 있다.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과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선진화 정당이 나오고 선진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선진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유권자운동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화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의 올바른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은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이전과 같은 엉뚱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때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교육과 의식개혁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떤 대학교수가 방송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화야말로 큰 문제이며, FTA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화는 결국 우리의 국가 이익을 파산시키고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계화는 크게 봤을 때 기회이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기나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과제일 뿐이다. 세계화를 무조건 방어하는 것만이 민족과 대중의 이익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시대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을 가지도록 해 주는 것이 선진화운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는 접고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가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때 정치인들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 중 몇몇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국민들이 수정주의 역사관에 빠져있고 포퓰리즘과 지역구도에 약하면 소수의 선각자적인 정치지도자가 있더라도 자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다면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혁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人間**



21세기는 전문경영인시대 희생과 솔선수범으로 '함께 가는' 조직 만들어야

서두칠 동원시스템즈(주) 부회장



사진 오경근 원장

서두칠 부회장

1939년 생 / 경상대 농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경상대 명예경영학 박사 / 농협중앙회 과장 / 대우중공업 부장, 이사 / 대우전자 이사, 상무 / 대우전자부품 대표이사 / 대우전자 부사장 / 한국전기초차 사장 / 아주대, 이화여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CEO포럼 부회장 / 도산CEO포럼 상임대표 / 동원시스템즈(주) 사장

1997년 말 총부채 4,700억 원, 부채비율 1114%, 퇴출대상 1호 기업인 한국전기초자에 서두칠 대표(현 동원시스템즈 부회장)가 부임했다. 강성 노조의 장기파업 중에도 그는 투명경영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직원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갔다. 그리고 3년 뒤 회사는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률 1위의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남들과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 후 서 부회장에게는 '기업회생의 연금술사', '구조조정 달인', '경영혁신 전도사' 등 각종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서 부회장은 2002년 동원그룹의 부름을 받고 동원시스템즈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5층에 위치한 넓은 사장실을 버리고 2층 구석진 곳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그리고는 회사가 이익을 낼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해 실제 1년 반 동안이나 무급으로 일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결국 적자에 허덕이던 동원시스템즈도 다른 통신부문 장비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상품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해 또 한번의 경영신화를 일구어냈다. 그의 집무실은 늘 열려있다고 한다. 이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만의 리더십 표현이다.

당시 서 부회장의 자리이동으로 한국전기초자의 주가는 급락한 반면 동원시스템즈의 주가가 급등했던 일은 그의 'CEO 주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일화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004년 12월 그를 '영향력 있는 글로벌 경영자 25인'에 선정했다. "대부분의 CEO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그는 '함께 가자고 외쳐왔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21세기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는 전문경영인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서두칠 부회장을 만나 리더의 희생과 솔선수범으로 시작되는 경영혁신 방향과 21세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지난 4월 발간하신 책에서 '전문경영인시대'를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을 보면 창업주경영인시대, 고용경영인시대를 거쳐 이제 전문경영인시대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창업경영인의 도전성, 책임성 등이 장점이라면 전문경영인은 창의력, 자율성, 유연성이 장점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회사의 자금, 경영방식, 비전을 창업자나 그룹이라는 큰 덩치에서 지휘하고 결정하는 등 전문경영인은 창업자나 그룹의 우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고용경영인의 측면이 강했어. 하지만 앞으로 전문경영인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창업경영인의 도전의식과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경영인 역할에서 벗어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소신을 가진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첫 직업인 교사에서부터 대우전자 등을 거치기까지 어찌 보면 늦깎이 CEO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문경영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농협중앙회에서 일했습니다. 그 후 6곳의 상장기업에서 일했는데 업종, 직종이 모두 달랐죠. 물론 조건을 보고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도전의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늘 앞섰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적응에 별 무리 없이 지내고, 결국 3개 회사의 CEO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학습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 평생학습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직원들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전기초자 시절 '365일 전일근무', '상시주재' 원칙을 고수하셨는데요. 쉽지 않은 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1997년 말 대우그룹이 한국전기초자를 인수하면서 제가 경영을 맡게 됐는데, 부임 당시 회사는 4,700억 원의 부채와 1114%라는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기업이었습니다. 채권단에서도 자금지원을 중단했고 내부적으로도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하고 있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세계적 건설탕사인 부즈알렌 해밀턴도 회생불가판정을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직원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있었어요. 하나는 고용보장만을 외치며 살아남겠다는 부류였고, 다른 한 부류는 새로 부임한 대표와 함께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남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쉬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깨어있자는 거였죠. 직원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자고 했는데 자리를 비우거나 휴일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부채를 갚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는 '365일 전일근무'와 '상시주재'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최고경영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일의 한가운데에 서서 중심을 잡아나가기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원시스템즈 사장으로 부임한 뒤 이익이 날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1년 반 동안 무급으로 일했던 것도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며, 한국기업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 중 하나가 '폐쇄적 경영태도'입니다.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음란사이트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골방이 아닌 열린공간에 두라고 하잖아요. 닫힌 공간에는 햇볕이 들지 않죠. 그런 공간은 곧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설사 부패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부패의 유혹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죠. 반대로 열린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한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 스스로도 떳떳해지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부와 함께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해요. 경영은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하는 훈련'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일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열정을 가져야 해요. 동기유발이라는 것이 강제적인 수는 없지만 기업에는 돈을 위해 일하는 열 명의 사람보다 일의 재미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듯이 일에 대한 열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 스스로 동기유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경영은 사람이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라고 하죠. 기업(企業)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人) 아래에 그칠 지(止)를 쓰고, 일 업(業)자를 써서 '사람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고 인정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조직, 또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조직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인자(仁者)'로 분류되는 한국사람의 특성상 놀라울 정도의 헌신성과 몰입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앞서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은 로드맵을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구성원 스스로도 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일에 과감히 뛰어들 줄 아는 도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노사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빼앗기고, 손해보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상반된 사람들이 색안경을 골라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노

사관계죠. 때문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안경색깔을 같게 하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조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대화하는 훈련'이 바로 그 해법입니다. 한국전기초자에서도 강성노조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꾸준히 대화하는 훈련을 했더니 결국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사임을 하더군요. 그 동안 강성, 단결, 투쟁, 쟁취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지내고 보니 애써 투쟁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항상 문을 닫고 있다가 노사교섭 때만 '요 구사항을 내나라', '성실히 토론하자'고 나오는데, 365일 '오픈도어'하면 1년 내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의 문제는 결국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방향으로 경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리더가 해야죠. 결국 노사문제는 노동자의 문제보다는 리더의 의사결정과 판단력에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할만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질 또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을텐데요. 21세기 리더의 자질, 리더십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리더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변화' 하면 자신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것만 고민한다는 겁니다. 리더는 모범을 보여 먼저 변화를 보여줘야 해요.

그 변화의 첫째는 리더는 젊은 나이부터 '이순(耳順)'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리더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로 리더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리더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셋째로 리더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균형있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에는 리더의 덕목으로 성실성을 꼽았습니다. 성실성은 자기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거죠. 그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국민, 사용자와 고용자 정도로 관계가 단순했어요. 하지만 21세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래서 그들 모두를 배려하는 균형의 힘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21세기에는 성실성과 카리스마라는 덕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기업체 강연을 하다 보면 간혹 사장이나 회장이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금방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아랫사람들이 잘못해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노사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강연을 통해 직원들을 교육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조직의 발전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Follow Me)'가 아닌 '함께 가자(Lets go)'의 형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회장님께서서는 기업이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할 문화를 '공부하는 문화'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연구원의 모토인 '인간개발'과도 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의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분명 다릅니다. 20세기에는 몇몇 엘리트들과 CEO가 전략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들을 보좌하고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이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은 "우리 그룹에 우수한 인재가 오리라 기대하지 마라. 보통의 인재를 우리의 문화와 전통으로 훈련시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발전은 몇몇의 우수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잘 할 때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의 인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조직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혁신전도사로서 한국경제의 골 깊은 불황시대를 바라보는 부회장님의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불황시대의 극복 방안이나 한국기업의 변화상을 제시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경영자들은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란 것은 단순히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주고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나 환경단체, 국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킬만한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이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업에 손을 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가 당당해질 수 있을 때 조직의 비전도 실현되고 오랜 불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회장님께서서는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에 귀국했는데,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둘째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형의 사고로 받은 보험금을 형이 다니던 학교에 장학금과 가해자인 택시기사의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사히신문 사회면 톱기사에 미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신문에 소개된 뒤 오히려 더 많은 성금이 모였는데, 부모님은 그 돈으로 일본에 조선인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식이 죽어 받은 돈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날의 신문기사는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때 신문을 꺼내보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기독교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가난한 농가 출신이지만 성실성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신 겁니다. 성실성은 경영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제1의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업의 혁신전도사로 바쁘게 활동하신 만큼 정작 본인의 건강은 소홀하셨을 듯 합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노동이지 무슨 운동이냐고 하지만 운동도 따지고 보면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일한 다음에 쉬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합니다. 이것은 활동과 휴식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봐요. 결국 마인드가 중요하죠. 한국전기초차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신념, 마음의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31주년을 맞았습니다. 부회장님께서도 연구원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3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영자들을 위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모임을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것은 이제 하나의 명품 브랜드로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1주년을 기점으로 군문화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명령복종의 군문화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변화를 꾀하는 시도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의 모든 프로그램이 사상적 측면에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5.31 지방선거 단상(斷想) 지역이 건전해야 국가가 건강해진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선거는 主權在民을 실현하는 기본 수단

5.31 지방선거는 과정과 결과 진단에 많은 문제점 노출

5월 31일 실시된 네 번째 '4대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대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1995년 지방자치가 완전히 복원된 이래, 여당의 이러한 참패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여당 대표의 사퇴로 이어지고, 여당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확인하고 실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은 다음 선거를 위하여 선거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 민심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재민이 실현되고, 국민지향적인 정치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 동시지방선거의 과정과 그 결과의 진단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여당이 제기한 '지방정부 심판론'이다. 이는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절대적으로 야당이 많음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에 국정的主要 과제로서 제시한 '지방분권화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또한 선거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씩씩이론', '견제론'이라는 표현을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쓸 수 있는 용어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정치개혁을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하게 제기했던 참여정부였음에도 정책선거가 아닌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전략이 정부 여당으로서 적절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야당이 제기한 '국정 심판론'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2년간에 걸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질적으로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행위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매스컴과 정치평론가들, 심지어는 시민단체까지도 국정의 심판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적합한 인재 발굴과 선택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이기에 '지방의 선택'이 되어야 할 선거가 왜 국정의 심판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 심판'이 되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중앙만 있고 지방은 없는 것인가?

세 번째 문제점은, 여전히 '지역색'이 선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갈등 이전에 남남간의 갈등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이래 지역색에 근거한 선거전략과 그 결

과는 진정한 지역일꾼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정부는 부산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던 참여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내걸은 정치개혁이나 정책선거 구호와는 달리 당선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1차적 감정인 지역성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지역성에 근거한 선거가 종식되지 않는 한,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제는 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세 번에 걸친 지방선거 이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4년 후에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번의 지방선거 결과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과 책임에 있어서 국정 위주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 전망이나 월드컵 열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 실종되고 만 것이다.

지역사회 소유의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되어야

따라서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아울러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꾸준히 탐색되어야 한다. 특히 올바른 선거만이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인식 하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앙의 시각뿐만 아니라 지방의 시각까지를 포함한 국가 시스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진단하고 그 처방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이 국경관리와 연계되어 잘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자치가 겪은 수난을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구현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소유의 지방정부 (community-owned government)'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중앙정치의 연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역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권화 작업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전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케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분권화 전략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분권화 추진을 위한 시사성을 찾는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재일 교수

1952년 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日 중앙대 정치학 박사 /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위원 / 자치인력개발원 지도교수 / 대통령자문 정책평가위원회 정부혁신평가팀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한국NGO학회 회장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셋째, 분권화와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직접 당사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사나 시장, 군수, 그리고 의회의원이 되는 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한은 주어지기보다는 쟁취된다는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분권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넷째, '장(長) 중심의 정치·행정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분권화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국회(의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군부독재시대에 향유했던 국민(주민)대표권과 입법대표권에 대한 독점적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주민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의의 적절한 권력분점을 통한 역할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분권화 논의는 주로 官과 官 사이의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분권화 논의가 정부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분권가치에 대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 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국민)체감적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자치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과 경찰을 제외한 지방자치란 '포와 말을 빼고 게임'을 하는 장기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교육과 자치경찰과의 연계 선상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재설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정당정치가 지방자치에 깊숙이 침투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약하고 관 우위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기회보다는 아직도 관직 쟁탈전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 후 유증이 상당히 크다. 특히 '공천=당선'이 등식화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정당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정치가 실종되고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의 연속에서 벗어나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 공천권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제약적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와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인 제도 개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미흡했지만, 주민투표제 도입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견제적 장치는 많이 마련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함께 주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



만남과 삶의 의미

안덕현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은 본원과 밀양시가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밀양시민대학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에 힘입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과 밀양시는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밀양시의 지적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6월 9일 "만남과 삶의 의미"를 주제로 제40회 강연을 해주신 안덕현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남'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은 만남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노사연씨의 '만남'이란 노래 다들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 잊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안덕현 교수

196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 1977년 육군 소령 예편 / Asia Institute of Technology 농공학과 이학 석·박사 / 농림부 농어촌복지담당관, 산학협력단장, 농어촌인력과장, 법무담당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부설 창업보육센터 소장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부장

노랫말 하나 하나가 정말로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사랑인데, 만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것

오늘 저와 밀양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조물주가 세상만물을 창조할 때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방상하(四方上下)를 우(宇)라 하고, 고왕금래(古往今來)를 주(宙)라고 하여, 천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생각인 우주의 뜻 즉, 공간과 시간을 망라한 총체와 상통합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우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5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타당성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유인원이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500만 년 전입니다. 그럼 시간상이나 공간상으로 볼 때 200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광년'이라는 단위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광년이란 말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크기는 그 지름만 10만 광년이 넘고, 두께는 약 3000광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가 우주 안에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 곳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우주에서, 우리 은하에서, 그것도 지구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밀양시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인연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의 첫 노랫말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불교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전생의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을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올라서 머리만 들어 갈 수 있는 구멍 뚫린 판자에 목이 낄 수 있는 인연'이라는 뜻으로 맹귀우목(盲龜遇木)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필연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고 전생에 계속해서 인연을 갖고 살아와서 지금 이 시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와 너의 만남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바쁜 세상에 답도 안 나오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좌절이 찾아올 때쯤이면 또다시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천지인(天地人)사상'에서는 "하늘은 늘 원리를 중시하고 땅은 원리를 실현하는 장소가 된다. 사람은 지상에 있

으면서 하늘의 원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가에 핀 작은 꽃과 풀, 벌과 작은 곤충들에게조차 우주의 작은 원리가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늘 아래(밀양시면 밀양시, 한국이면 한국) 살고 있는 작은 손님이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코와 눈, 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심성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부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무도를 보면 '너와 나'가 구분되어 있지만 저는 우주에서 '너와 나'는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한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조건

진정한 만남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만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스쳐지나 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로서는 만남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인간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았던 친구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 두 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 삶 자체가 너무 투쟁적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의 적이고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점점 친구들이 멀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과 힘든 점을 털어놓기조차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만났다는 자체를 진정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꾸밈없이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나와 상대방의 경계를 뚜렷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텃밭에 상추 같은 채소를 심을 때도 씨앗을 다닥다닥 뿌리지는 않습니다. 서로 최소한의 공간은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 주지 않는다면 대화가 형성될 수 없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신성(神性)이 피어나게 하는 열쇠는 '아름다운 소망'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바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는 것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통해 사람들과 합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죠. 예수나 석가는 자신의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만의 삶의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들 또한

삶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성공이 목적이 될 수도 있으며, 베풀며 사는 삶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임무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고 웃음이 절로 나오 기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나서 하루하루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생활이 결코 맘에 들지 않아 출가하여 밥도 굶으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밥을 굶으면서도 가슴이 떨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석가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골고루 퍼뜨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는 이 중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약 8000명의 사람들에게 설파한 것은 '신성(神性)의 실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현을 시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사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신성이 피어나게 하는 결정적 열쇠는 아마도 아름다운 소망 즉, 바람일 것입니다.



바람, 소망은 비전실현을 위한 발판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바로 바람, 소망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투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비전의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만의 만족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우리의 만족,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이룩하고 돌아가야 될텐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어요. 끊임없는 경쟁상태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어졌고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루는 수학문제를 들고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절대 그 문제의 해법을 안 알려 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다시 물었더니 문제의 해결법을 알려줘서 아들의 점수가 오르면 그 친구는 내신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친구들한테 문제의 해법은 절대 안 알려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머리가 썩 좋지는 않지만 성적이 상위권에 있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부모를 욕하며 공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먼저의 학생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없는 체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책망하고 자책하며 아예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렬히 원한다면 삶의 목표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의지할 때 얻어지는 것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석가모니가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바로 중생에 대한 사랑이며, 예수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람의 에너지가 가장 약해 질 때는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때이며, 반대로 평화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에게 내재된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22년간 연구한 끝에 이러한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아봤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 참고 또 참아봤습니

다. 그런데 참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참다보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참았던 행동이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라는 댐은 점점 그것을 쌓아두고 쌓아두다가 마지막에는 터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만남이란 서로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열지 않고 수용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계산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 갈 것을 서약하십니까"라는 혼인서약을 하듯이 사랑이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행복 느낄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은 행복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직위가 올라간다, 부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잊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고, 밀양시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는 가벼운 마음과 추억들만 가지고 갑니다. 돈, 명예, 직위와 같은 무거운 것은 다 내려놓고 영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부족한 점을 꼬집기보다는 장점으로 보태어 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人間**

21세기 세계경제올림픽에 등장할 기업챔피언은 누구일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피언이 되기 위한 국민적 열정과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 월드컵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량과 투혼, 열정을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과학기술인들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월드컵으로 눈을 돌려보자. 어떤 기업들이 21세기 세계경제월드컵에 등장할 것인가.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500대 기업 선정 5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4월,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경영전략가인 피터 슈워츠에게 2054년 세계 10대 기업을 선정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슈워츠 박사는 50년 후 아시아의 도약을 예상하며 가상으로 아마존베이(미국), 도요타(일본), 시노가존(중국), 시노바이오코프(중국), 인도소프트(인도), IBM(미국), 파텔코(인도), 네슬레(스위스), 나노보틱스(미국), 뉴스코프(미국) 등을 선정했다. 이 중에 중국, 인도,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이 5개나 됐다.

1955년 당시 세계 10대 기업은 GM, 스탠더드 오일, U.S. 스틸, GE, 스위프트, 크라이슬러, 아모어, 걸프 오일, 소코니-배큘 오일, 듀폰이었다. 한편 2004년 세계 10대 기업은 월마트(미국), BP(영국), 엑슨 모빌(미국), 로열더치셸(영-네), GM(미국), 포드(미국), 다임러 크라이슬러(독일), 도요타(일본), GE(미국), 토텔(프랑스) 등이 선정되었다. 100년이라는 시간차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IMF위기 이후에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50년 후 세계 10대 기업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월드컵 16강 진입에 실패한 한국팀을 보는 것만큼이나 서운한 일이다.

지난 6월 12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인도, 중국, 멕시코, 브라질의 글로벌기업 '신홍8강'으로 뜬 위프로(매출액 18억불, 기술서비스업), 바타포지(매출액 4.5억불, 자동차부품), 존슨일렉트릭(11억불, 소규모 모터 생산), 갈란즈그룹(12억불, 가전제품), 시맥스(81억불, 시멘트생산), 모델로(38억불, 주류제조), 엠브라에(50억불, 제트기 제조), CVRD(80억불, 철광석 생산) 등 12개 개발도상국의 100대 기업을 GE나 지멘스 같은 세계적 기업을 위협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선정 발표하였다.

아시아대륙과 남미대륙에서 21세기 경제월드컵의 챔피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세계시장은 그만큼 활발해지고 경쟁 역시 치열해지겠지만 한국기업들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에 'Better People Better World(좋은 사람이 좋은 기업을 만든다)'의 원칙을 따라 어떻게 21세기형 기업인재를 만들어 가느냐에 미래예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人間**



내가 오늘(6월 24일) 아침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전남 장성군 방장산자연휴양림 내의 '숲해설가의 집'이라는 곳이다. 한국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 스위스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제는 제491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 대통령비서실 이병완 실장(장성군 남면 출신)을 강사로 초청 "참여정부의 리더십"이라는 특강을 듣고 느낀 바가 컸다. '금의환향', 고향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병완 비서실장의 강의는 솔직담백해서 좋았다.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래 헌법기초에 근거한 민주화의 실천을 위해 애써왔고,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려 애써온 노무현 대통령의 외로운 개혁 의지와 고뇌를 오해 없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IMF 경제위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을 치르면서 쓰러져 버린 기업들이 많아 실적의 여파로 민생고는 말할 수 없이 심화돼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면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무참히 참패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경제 10강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돈 쓰지 않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해서 실질적인 민주화의 터전을 닦아 놓았고, YS정부 때 실시한 금융실명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경제의 선진화가 요구하는 투명사회로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이루어 가는 근간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사일 발사문제, 핵문제 등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남북문제도 6.15정상회담, 전쟁억제정책, 평화공존정책 등이 좌파정부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북한문제는 선불리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서 북한의 침략에 대한 국가안보관을 넘어서서 외세의 지혜로운 방어를 위해 국방력을 튼튼히 해왔다는 점도 새겨들어 볼 만한 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선거에 참패한 것처럼 인기가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헌법정신에 의해 국민에게 권리를 되돌려주고 본질적인 민주국가와 경제대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혁신의지와 개혁정신을 고수하고 남은 인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진해나갈 것이며, 7월 중 새로운 국가비전과 국가적 결단이 담긴 정책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큰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다.

2006년 월드컵에서 16강 진입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보여주었듯이 대한민국이 정치올림픽,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과학기술올림픽에서 세계



인터넷에 따뜻한 감성을

장성근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인터넷은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유용한 매체 그러나 인터넷의 역기능은 조심해야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인터넷의 보급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에 명암을 그리면서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손글씨로 쓴 편지를 받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메일이 보편화되었고, 뉴스도 신문보다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며, 상품의 구매와 금융거래도 인터넷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과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매체였음이 밝혀졌다. 개인의 의견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개인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



장성근 총장

1944년 생 / 서울대 화학과 졸업 / 서울대 이학 석사 / 가톨릭대 의학 석·박사 / 美 국립보건연구원(NIH) 생화학연구실 방문연구원 / 순천향대 화학과 교수, 교무처장 / 순천향대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센터 소장 / 순천향대 교수협의회 의장 /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장 /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부회장 / (사)한국과총 충남지역연합회 부회장

는 지식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식은 인터넷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미래 사회와 새로운 문명의 총아로 주목받는 인터넷은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크 정보가 범람하고,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며, 성적 이미지가 과도하게 개방되었고, 악플과 사이버 테러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모순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매체가 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화가 가장 잘 표현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인터넷을 수용하면서 빚어진 이 모든 현상은 달리 생각하면 인터넷 문화의 초기 단계임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아바트 생활자가 국민의 60%가 넘어선 상황에서 인터넷은 문화적 표준화와 획일화를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마저 하는 듯 하다.

부정적 요소가 많은 인터넷문화를 긍정의 문화로 바꿔야 할 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문화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교실이 조용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시끄러워지는 데는 단 한 사람이 떠들어도 가능하다는 사실과 비슷하다. 서로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상대를 함께 생각할 때 교실은 비로소 모두에게 유익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질서는 만들기는 어

러워도 깨뜨리기는 쉬운데, 인터넷도 이와 같은 측면이 있다. 생각해 보면 인터넷문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속도와 효율성이고, 속도와 효율이 가장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느린 것과 비효율적인 것은 배제되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은 활력은 있으나 지극히 소란하고, 변화가 있으나 현기증이 날만큼 빨라 무엇을 위해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인류가 추구해왔던 많은 가치와 인간적인 면모란 곧 느리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아니던가. 인터넷의 공간 속에서는 이들이 대거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주도적 매체와 다른 매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새것이 과거의 것을 보듬을 줄 알아야

매체의 관점에서 이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들이 볼펜을 사용하기 전에는 만년필을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는 붓을 사용하였다. 1940년대의 한 대학교수는 과제물을 언제나 붓글씨로 받았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의 일부 교수가 문서편집기가 아닌 손글씨로 과제를 써서 제출하라는 주문과 너무나 비슷하다. 어떤 경우든 교수는 자신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매체가 지닌 감성과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가. 문서편집기로 글을 쓰는 젊은 세대는 오히려 그것이 편하지 않은가. 이는 마치 60년 전에 볼펜을 불편해 했던 교수에 비해 지금의 교수는 그 볼펜마저 지키려고 하듯이, 앞으로 신세대들은 문서편집기를 지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주도적인 매체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매체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만일 하나의 주도적인 매체 이외에 다른 매체들을 배제하면 문화는 금방 빈곤해질 것이다. 붓글씨는 나름대로의 문화와 참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만년필이나 볼펜이나 문서편집기 역시 나름대로 정서와 표현 체계가 있다. 이들을 공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젊은이가 늙은이를 업고 가듯이, 새로운 것이 과거의 것을 보듬고 가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 공간'이라는 관념을 바꿔라

또 하나 우리가 인터넷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기존의 매체 이외의 부차적인 정보 체계나 전달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가상 공간'이다. '가상 공간'이란 말은 '현실 공간'이란 말에 대비되는 말로, '허위'나 '가짜'라는 의미와 함께 무질서하고 공포스런 공간이란 느낌을 주며, 그래서 익명으로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준다. 그러나 '가상 공간'은

현실 세계와 대응되긴 하지만 결코 가상이 아니며, 또 하나의 소중한 공간이다. 가짜이고,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유용한 공간이며, 현실 공간 못지 않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상 공간'이란 애매한 말 대신 좀더 인간적인 어휘, 예컨대 '또 하나의 공간' 등의 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문화에 따뜻한 감성을 입혀라

세 번째로 우리는 인터넷에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에서 성공한 업체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감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쪽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많은 사업이 모든 관련 사항들을 웹페이지에 나열해 두고 관리만 하려고 하였다. 이는 효율을 맹신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갑고 무감각한 소통을 불편해하고 꺼려하였다. 사람들은 전화를 하여 목소리를 듣고, 만나서 말을 하고 들으며, 편지를 써서 주고받으려 한다. 온라인문화에 따뜻한 감성을 입히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지극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에는 인터넷이 정보 전달에 있어 '무엇'에 주목하였지만 앞으로는 방법 즉, '어떻게'에 주목할 것이다. 장래 인터넷의 발전도 이러한 보완에서 더 큰 활력과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 향후 과제

우리나라에 온라인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교가 세워진지도 6년째가 되었다. 열린사이버대학교도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대학교 가운데 하나로, 12개의 유익하고 실용적인 전공을 개설하였으며, 일정한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여 여러 차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학습과 시험 등 기본적인 학업을 수행하는 이외에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인간적인 만남과 유대를 중시하였다. 학교에서도 단순히 웹페이지를 읽어보라고만 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과 MT와 스터디를 통해 선후배와 만나며, 전화를 주고받고, 카드를 쓰고, 손글씨로 편지를 주고받게 한다. 온라인의 부족한 점을 오프라인 등 전통 방식에서 끌어오며, 전통 매체 속에 부족한 면을 인터넷으로 보완하고 있다. 오늘 부족한 것은 어제에서 가져오며, 어제 모자랐던 부분은 오늘의 것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이 추구하는 투명성, 선진성, 효율성에 더하여 따뜻하고 소중한 전통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듬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의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유한양행(사장 차중근)**은 창립 8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24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오창공장 준공식과 함께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차 사장은 기념사에서 "유한은 80년간 이룩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한 100년사를 위한 판을 짤 시점"이라며, "이번 오창공장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돼 세계적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은 1926년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가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설립, 국내 제약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 **(주)수성(사장 김정배)**은 지난 5월 28일 대지면적 44,414.80㎡ (13,435.48평)규모의 인천 청라지구 공장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제11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 **롯데호텔 서울(사장 장경작)**은 신관 로비를 1층에서 14층으로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다. 번잡한 1층 로비와 달리 14층의 로비는 조용하고 한적하며, 고급 원서들과 소파들로 이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편 장경작 사장은 6월 1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뒤 14층 로비에서 다과회를 열어 본원 회원들에게 신관 로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태창가족(사장 김서기)**은 지난 6월 8일 동아닷컴과 iMBC,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한 '200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KB카드' 등과 함께 23개 대표 브랜드에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소비자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치로 연상되는 브랜드를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교보문고(대표이사 권경현)**는 6월 9일 전주 도심 고사동에 전주점을 오픈하였다. 이번에 오픈한 전주점은 빌딩 1층과 지하 2층을 합쳐 연면적 1300평으로 전북 최대규모의 서점이다. 한편 전주점은 7만종 17만여 권의 도서와 5만 여종의 문구, 음반, 선물상품들을 진열하고 개방형 북카페를 갖추고 있다.

• **오명 前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지난 6월 12일 건국대 이사회에서 제17대 총장에 선임되었다. 오명 신임 건국대 총장은 9월 1일부터 임기 4년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오 신임총장은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의 접목 등 융합연구와 특성화를 통해 건국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집단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2창업의 자세로 혁신을 추진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미래비전을 담고자 KODIT(코딧)으로 새롭게 심볼과 마스코트를 제정하였다. KODIT은 'Korea creDIT Guarantee Fund'의 합성어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경제사회를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핵심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정림건축(명예회장 김정철)**은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한 제2회 정림학생건축상을 실시한다. 이번 대회의 테마는 '전통과 현대-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던코리아는 무엇인가?'이며 시상식은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수상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 **김우항 제일화재해상보험 부회장이** 지난 6월 20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최고경영자(CEO)대상'을 수상하였다. 전문경영인으로 20년 이상 활동해 온 김 부회장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난을 겪던 제일화재에 영입돼 1년만에 회사를 흑자기업으로 변모시키는 등 그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와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삼화페인트(부사장 윤석영)**은 '엠보싱 도장용 폴리우레아수지 조성물 및 엠보싱 도장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종전의 콘크리트나 철골로 이루어진 주차장이나 보도 등의 바닥에는 우레탄 도료가 주로 도장돼 왔으나, 이 경우 표면이 매끈해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특허로 경

화속도가 매우 빠른 폴리우레아 도로이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고 유 기용제나 금속촉매가 함유돼 있지 않아 친환경적인 바닥재 도로로 평 가받고 있다.

• **황영기 우리은행 행장**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서비스분야의 경영혁신 및 리더십 향상에 공헌한 최고경영자(CEO)에 수여하는 '최고경영자상' 에 선정되었다. 황 행장은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객 중심적인 경영 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성과주의문화 정책을 토대로 선도적인 경영성 과를 이끌어 온 점이 인정되었다.

• **한국야쿠르트(사장 김순무)**의 '사랑의 손길퍼기회'는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일대 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대 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다. 이 성금은 한국야쿠 르트의 전 임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1%를 각출해 모은 것으로 '사랑의 손길퍼기회'는 지난 75년부터 봉사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맵지 않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비빔면 제품 '팔 도비빔면 고소한 맛'을 새롭게 선보였다. 회사측은 참기름 간장 스프와 함께 참깨 김 등으로 맛을 내 고소하고 순한 맛을 선호하는 고객과 어 린이의 여름철 별미로 좋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제1회 농협문화복지대상을 공모한다. 농 협문화복지대상은 농업과 농촌을 곳곳이 지켜 가는 최우수농가를 비 롯해 농촌문화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상이다. 최우수농가에 각 1억원씩의 시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공모전은 6월 12일~8월 11일까지 2개월간 추천을 받 아 11월 중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김호진 세종대 이사장(전 노동부 장관)**은 역 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대통령과 리더십 >(청림출판)을 내고 지난 6월 12일 서울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저자 가 이승만에서 김대중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의 성장과정과 국가경영, 리더십 등을 비교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무엇보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실패하며, 콤플렉스를 이겨내는 자가 성공한 국가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심갑보 삼익THK(주) 부회장**은 6월 14일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CEO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고, 6월 21일에는 세종연구소 제12기 세종국정과정 연수과정 에 초청되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 CEO의 역할과 책 임"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이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신임 총재로 지난 6월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 **이호조(前 성동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회원**은 7월 3일 서울시 성동 구 구청장으로 취임식을 가진다.

• **장찬기(인천실버타운 회장) 회원**의 모친 서만연 여사가 인천일보가 주 최하고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제28회 인천보훈대상' 특별상을 수상하 였다. 서 여사는 93년에도 국가유공자 장한어머니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신규회원**



이재원 (주)이투엑스포 고문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2-10 삼경빌딩 5층
 · 전 화 : 02-334-0500
 · 팩 스 : 02-333-3957
 · 업 종 : 전시기획
 · 추천인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조수연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14 유일빌딩 4.5층
 · 전 화 : 02-3498-0801
 · 팩 스 : 02-578-0662
 · 업 종 : 마케팅프로모션
 · 추천인 : 김창호 에텐스포츠레저타운 대표이사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월간 골프가이드	강민지 대표	7월 1일
(주)혁신정보시스템	신덕균 사장	7월 1일
일양약품(주)	정형식 명예회장	7월 1일
(주)반포텍	최계순 사장	7월 1일
삼이솔루션	한승우 대표이사	7월 1일
(주)유창	차영준 부사장	7월 4일
삼보주단	윤건우 사장	7월 5일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	7월 5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 7일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7월 7일
(주)이투엑스포	이재원 고문	7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민형 상무	7월 15일
(주)코아21	이봉수 대표이사	7월 21일
(주)에어랩	황진수 대표이사	7월 21일
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7월 27일

■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 법무법인 우현 고문)** 6월 정기모임이 6월 20일(화) 명동로얄호텔 1층 그린홀에서 있었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주택문화사 사장)**의 6월 월례경기가 6월 27일(화) 한양C.C에서 있었습니다.
-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의 6월 모임이 6월 22일 미술관 리움에서 그림관람과 함께 음악회 관람으로 있었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은 6월 26일 비정기모임을 갖고 강은성 화백의 화실을 방문하여 조촐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연구원소식

- **중국 감속성 대표단 방문**
장만기 본원 회장은 지난 6월 18일 서영 감속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감속성 대표단 7명과 조찬모임을 갖고 투자 및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영 주임은 이 자리에서 감속성은 광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에 장만기 회장도 한국 기업들이 감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감속성은 중국 서북지구에 위치해 중국과 서방세계를 연결해주는 성으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 **본원 양병무 원장은**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설립 및 여성 HRD연구센터개원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략적 여성인적자원 관리의 설계와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5월 25일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 지자체소식

- **무안 황토골자치마당 개설**
전남 무안군(군수 서삼석)과 본원은 지역주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하는 열린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무안황토골자치마당'을 개설하였다. 황토골자치마당은 6월 29일(목)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백이 있어야 희망이 보인다"라는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월 1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4기 당선자들이 7월 3일 취임식을 갖고 시·군·구청의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원과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경북도지사 김관용	• 전남도지사 박준영	• 광주시장 박광태
• 인천시장 안상수	• 거제시장 김한겸	• 광양시장 이성용
• 김포시장 김동식	• 목포시장 정종득	• 밀양시장 엄용수
• 부천시장 홍건표	• 여수시장 오현섭	• 영천시장 손이목
• 통영시장 진의장	• 강화군수 안덕수	• 고창군수 이강수
• 남해군수 하영제	• 달성군수 이충진	• 담양군수 이정섭
• 봉화군수 김희문	• 양양군수 이진호	• 영덕군수 김병목
• 영양군수 권영택	• 인제군수 박삼래	• 장성군수 유두석
• 진도군수 박연수	• 철원군수 정호조	• 평창군수 권혁승
• 하동군수 조유행	• 함양군수 천사령	• 해남군수 박희현
• 동작구청장 김우중	• 부평구청장 박윤배	

* 시·군·구 및 가나다 순입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조영상 비즈컴 사장의** 자녀 향아양의 결혼식이 지난 6월 2일 웨딩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종욱 우리투자증권 회장의** 자녀 나영양의 결혼식이 지난 6월 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의** 자녀 동훈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1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최신옥 한미콘소바토리 대표이사의** 자녀 지원양의 결혼식이 지난 6월 17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의** 자녀 신한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23일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용원 주5일넷(주) 대표이사의** 부친께서 지난 6월 16일(금)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무실이전

- **이찬일(서울에셋투자자문(주) 대표이사)** 회원은 지난 5월 27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0-27번지
- 전화 : 02-583-0568(변동없음) / 팩스 : 02-584-1882(변동없음)

LMI & YOU



홍길동 뛰어넘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읽고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혁신 사례로 일독을 권했던 <주식회사 장성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선보인다. 이 책의 저자인 인간개발연구원장 양병무 박사를 비롯해 조재호 교수 등이 개발자로 참여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홍길동 뛰어넘기"이다. '홍길동'이란 이름은 이 프로그램의 바탕이 된 장성군이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데서 따온 이름이다. 다시 말해 "홍길동 뛰어넘기"는 성공적인 혁신의 사표가 되고 있는 한 지자체의 성공 경험을 계기로 하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자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엘엠아이(주)가 개발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이 보급하게 된다.

이제 변화야말로 생존을 위해 필수인 만큼 바야흐로 모두가 혁신 중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똑같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결과는 다르다. 잘 하는 곳은 1%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델과 우리 조직을 비교해 보고 변화를 내부에서 일으켜보자는 것이 "홍길동 뛰어넘기"의 취지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혁신에 관한 이론을 배제하고 많은 사례와 영상으로 구성하여 토론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 500~800명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하여, 공무원이 생각하는 행정과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간격을 느껴본다. 또 직위를 떠나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므로, 말단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아우르는 범용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4모듈과 시작과 끝을 포함해 총 여섯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2박 3일간 총 2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참가 인원은 총 30명~36명이며, 팀 단위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 프로그램 구성

프롤로그 마음 열기

모듈1 지금, 여기서, 나부터

모듈2 우리 함께 손잡고

모듈3 1%를 찾아

모듈4 2%를 채우자

에필로그 다짐과 새 출발

■ LMI 소식

- 제7기,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과정 수료식
 - 일 시 : 6월 18일 (일) 오후 4시
 - 대 상 : 우종철 국제성공과학연구원 원장 등 9명
 - 지 도 : 엄경애 대표
- 숙명여대,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과정 7기 개강
 - 일 시 : 6월 23일(금) 오후 2시
 - 대 상 : 숙명여대 교수 10명
 - 지 도 : 송향섭 박사(LMI FT)
- (주)하도 1기,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과정 수료식
 - 일 시 : 7월 14일(금) 오후 5시
 - 대 상 : 옥평권 사장 등 10명
 - 지 도 : 송향섭 박사(LMI FT)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경영혁신원칙 10계명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혁신전도사.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성공사례'를 주제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강의를 한 덕택에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그리고 보니 요즘 혁신이란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고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장성군 사례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성공사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 리더가 앞장서야 혁신 성공

그러나 혁신은 참 버거운 주제이다. '革新'이

란 한자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자.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가 죽은 사람의 가죽을 새롭게 할 이유는 없다. 혁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런 과제인지 짐작이 간다. 혁신을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혁신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리더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은 혁신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혁신하라고 하면 그 혁신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조직이든 성공한 조직은 한 마디로 혁신이 일상화된 조직을 말한다. 세계화·정보화시대에 혁신하는 조직만이 꿈과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혁신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세계적인 초일류기업 GE를 이끌고 있는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존경받는 기업의 네 가

지 조건으로 "혁신, 경쟁의식, 성장에 대한 열망, 훌륭한 인재"를 꼽았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븐 발머 사장도 자신의 경영철학은 "혁신과 그것을 실행하는 실천력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장성군의 경영혁신원칙 10계명

주식회사 장성군의 경영혁신원칙 10계명을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은 놀라운 호환성이다. 혁신 10계명은 장성군만의 독특한 게 아니었다. 혁신에 성공한 조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성군 사례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통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혁신의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개발·혁신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 지식근로자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결국 혁신이란 자신의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식회사 장성군을 통해서 본 경영혁신원칙 10계명을 정리하고 음미해 보자.

첫째, 경영을 행정에 접목한다.

혁신은 초일류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도 끊임없이 앞서가는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장성군은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주식회사 장성군을 표방했다. 김홍식 장성군수는 지방자치제 출범 첫 해인 1995년부터 "군수는 주식회사 장성군의 대표이사인 CEO가 되고 공무원은 임직원이 되어 주민들을 주주로 모시고 주주를 감동시켜 1등군을 만들겠다"는 꿈과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왔다.

둘째, 기본과 원칙을 중시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혁신 교과서에 나오는 첫 대목이다. 기본이 바로 서야 원칙이 통한다. 기본과 원칙은 수립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자리가 잡히면 쉬워진다. 원칙에 맞으면 예스(Yes) 맞지 않으면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의 경험이 축적되면 변칙은 설 땅이 없어진다. 원칙은 공개가 가능하나 변칙은 공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다.

지식사회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장성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서울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장성아카데미'를 11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500회 가까이 진행을 했다. 또 전 공무원 유럽 배낭연수, 매년 전 공무원 3박 4일씩 민간기

업체 위탁교육, 서울 COEX견학, 농민대표들의 선진농업국 연수, 택시기사의 일본 MK택시 연수 등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지식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넷째,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탁상공론은 혁신과정에서 타파해야 할 우선 항목이다. 현장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혁신에 성공한 조직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 조직이다. "애로사항은 없는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수요에 반영할 수 있을 때 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

다섯째, 투명경영, 참여경영, 열린경영을 실천한다.

기업이든 정부든 투명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조직구조가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변화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재정의 투명성은 중요하다. 참여경영 역시 협조성과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열린경영은 더불어 노력하는 자세이다. 장성군의 경우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1996년에 296건에 불과했던 제안제도 건수가 2000년부터는 1000건을 넘어섰다.

여섯째,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실천한다.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리더의 역할은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장소에 발탁하는 적재적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일 중심으로 조직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일곱째, 결정은 신중하게 집행은 소신껏

한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관과 속고를 구분함으로써 빠른 결정과 신중한 결정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직관은 원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즉시해주는 경우이다. 또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가부를 결정해 준다. 반면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청취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여론을 중시하되 여론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여덟째, 모든 일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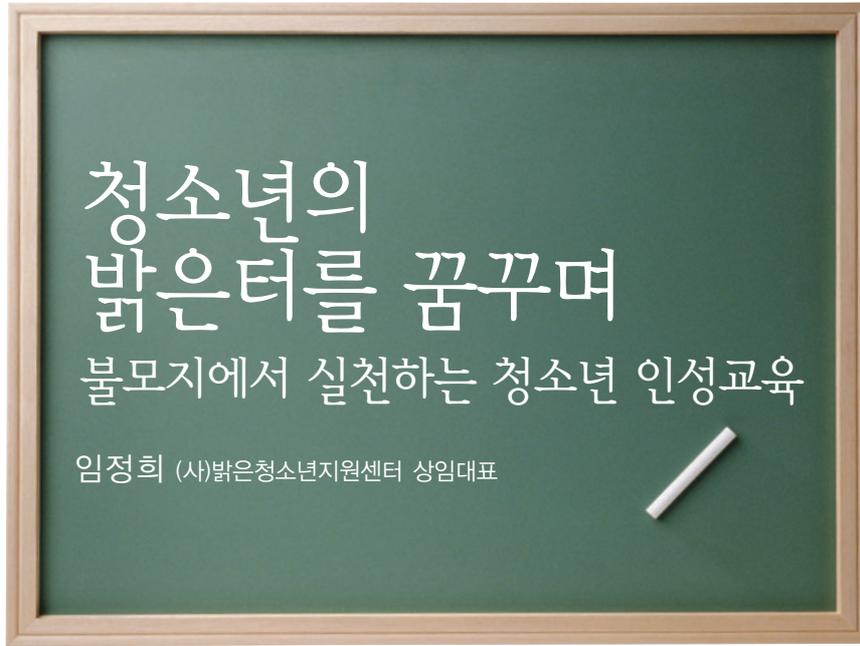
장성군에서는 3년 이상 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7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를 활용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기록문화를 중시하고 실천한다.

지식사회의 핵심은 지식의 공유에 달려있다. 기록문화를 통해 암묵지를 명백지로 만들어야 한다. 장성군의 경우 모든 사항은 기록으로 말한다고 할 정도로 기록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성아카데미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녹취하여 매년 장성아카데미 강연집을 만들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열 번째, 모든 일은 반드시 평가한다.

경영은 기획(Plan)과 실행(Do)과 평가(See)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피드백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장성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전문기관에 맡기어 평가하고 있다. 또 백양사 단풍축제나 홍길동 축제 등 주요 행사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평가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人間)



지난 6월 8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청소년수련관 "시끌"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7년 동안 인성교육을 실천하면서 힘겨웠던 일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가 가슴이 벅차 오르면서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이 몰려왔다.

21세기, 위기에 처한 청소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인성교육 실종시켜

21세기, 우리나라 청소년은 온갖 유희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에 유래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 그에 따른 가정문제의 급증 현상 등은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청소년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 중퇴 5만 명, 가출 10만 명, 비행 10만 명, 폭력 15만 명, 빈곤층에 속한 잠재적 위기 청소년 120만 명 등 총 160만 명의 청소년이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금만능사상,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과 세계 최고의 정보화 속도로 인한 역기능의 폐해가 이러한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 간의 생일 선물이 창녀촌 경험이고, 중학생만 되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부어라 마셔라' 문화를 모방하고, 도를



넘어서 치장하고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혹은 유희비 마련을 위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일부 부모들은 '기 안 죽인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과소비를 선도), 심지어는 또래 혹은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갈취하거나 자발적으로 성매매까지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이미 오래 전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종시켰다. 일진회 사건, 수능 부정사건, 교실 내 살인사건, 왕따, 폭력, 성폭력, 윤간, 인터넷 범죄 등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청소년이 건강할 때 국가의 기초가 튼튼함을 생각한다면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관·언론 모두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후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예방을 위한 실천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핀 결과 인성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아

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왕따, 폭력, 청소년 성매매 등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에 설립되었다. 구호나 사후처리, 미봉책이 아닌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인 인성교육을 실천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센터 설립 후 우선 프로그램 발굴에 나섰다. 그리고 당시 삼성사회봉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시형 박사가 3년에 걸쳐 개발해 놓은 "청소년기를 밝고 건강하게"를 채택하여 왕따, 폭력이 가장 심각한 시기인 중학생에게 2001년부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학교가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라 그 당시 외부단체가 학교에 들어가 1년 이상 정규 수업시간을 모두 할애 받

임정희 대표

1957년 생 /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졸업 / 이화여대 가정관리학 석사 / 美 스탠포드대 교육학 석사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운영위원 / 문화관광부 가정문화운동 자문위원 / 여성인권기금 상임이사 / 21C여성포럼 운영위원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기획위원 / 여성단체연합회운영위원 / 여성신문사 사장 / 서울시여성위원회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단 위원

아 학급 단위로 주 1회씩 인성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성적과는 무관한 인성교육은 학부모들의 저항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교사들의 집단 반발로 학교로부터 퇴출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청소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인성교육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교육을 다시 써야할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2001년 한 개 학교에서 시작한 인성교육은 해마다 확대되어 4개교, 9개교, 12개교, 23개 교로 지속적으로 늘어갔다.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학교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자녀의 왕따로 이민 가려던 가족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껴 이민가지 않은 사례, 교내 최고의 문제학생이 개과천선한 사례 등 현장에서 수많은 감동적인 사례들이 생겨났다. 교사들의 반발로 인성교육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성교육을 계속했던 사례도 있었다.

다양한 교구와 토론 위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철저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가, 전직 교사 등의 전문가들을 연간 100시간 이상 재교육하고 6개월 이상의 인턴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 후 평가자료로 강사를 선발하여 학급에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강사의 질을 높이고 배치, 관리함으로써 학교와의 신뢰를 쌓아 왔다. 이로 인해 명실공히 인성교육에 관한 최고의, 최대의 강사 풀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전문단체로 자리매김했다.

100여명의 인성전문 강사들이 기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직업윤리교육, 인터넷윤리교육, 모티켓 교육, 학교부적응학생 교육 등으로 주당 230여 시간, 연간 8000여 시간, 연인원 30여만 명의 청소년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보살핀 결과이다. 전국에서 연간 200여 개 학교가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Youth Edutainment Search: YES)과 너나들이캠프(외동이 외톨이캠프), 오

감푸리캠프(저소득층 청소년 예술치료캠프) 등도 분야, 내용, 질, 방식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국민교육유공자 포상할 만큼 정부도 효과 인정 '시끌', 또 하나의 청소년 밝은터로 만들어 갈 것

이제는 많은 언론보도와 입소문 덕분에 인성교육과 기타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학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교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와 요청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유일하게 장기 인성교육과 기타 선구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보급한 공로로 국민교육유공자 대통령표창까지 수여할 정도로 정부가 그 중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예방사업에 관심을 쏟고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회분위기 때문에 예방과 기초를 다지는 일에는 관심을 쏟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7년 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넘어왔다. 많은 봉사자들의 노력과 후원자들의 격려, 삼성사회봉사단의 3년간의 지원은 센터가 장기 인성교육을 학교에 뿌리내리며 교육의 역사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제2의 도약기로 접어들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펼칠 장이 마련된 것이다. 연건평 1700여 평의 공간 속에 자리잡은 대극장, 소극장, 다양한 체험장, 강의실을 갖춘 "시끌"이 그야말로 청소년으로 넘쳐나는 '시끌시끌'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마음껏 그들의 끼와 재주와 능력을 펼치고 연마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여 "시끌"을 또 하나의 선구적인 청소년의 밝은터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人間**



이상(異常)의 정상화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5. 31 지방선거의

결과는 선거 전에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새삼 이 선거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부와 여당의 참패가 예상한 때문도 아니고, 야당의 대승이 언짢은 때문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상증후(異常證候)가 점점 정상적인 것으로 굳어지는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비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선거를 반복해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생산성은 향상되는 기미가 없다. 행정의 생산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정치와 행정을 위해 이 나라 국민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번 선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였다. 그러나 선거의 양상은 지방자치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그 중심 이슈는 중앙정치였

지, 지방자치가 아니었다. 국민은 지방선거와 중앙정치 선거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현재처럼 되어 있는 한, 지방자치는 앞으로도 유명무실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대선, 총선, 보선, 지방선거 모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선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은 헛갈릴 뿐, 정치의 개선은 어렵다.

정치권에서 이 나라의 진로에 대한 경청할만한 비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탄핵 발의(發議) 이후로 민심은 극에서 극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불모의 정치에는 새 싹이 나오는 기미가 없다. 좌파, 우파, 중간파,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도 그 중심 개념은 모두 포퓰리즘일 뿐 경륜, 비전, 전략 따위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IMF를 맞은 이후로도 경제구조 개선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1년 반 동안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우리는 IMF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낙후, 금융부문의 부진,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경유착 등 압축성장의 후유증은 아직도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것은 물론 IMF의 책임

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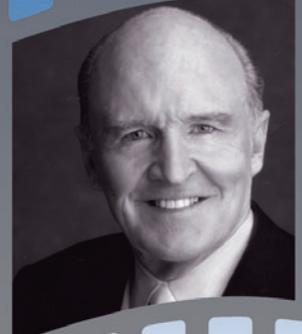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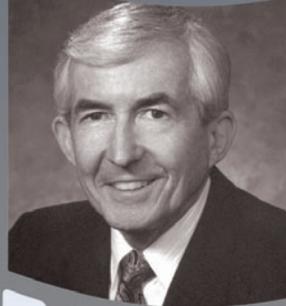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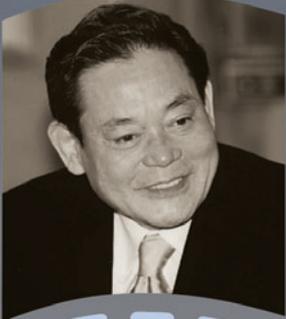
하지만, IMF는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라는 또 하나의 부(負)의 유산을 남겼다. IMF 이전에는 없었던 양극화라는 새로운 불균형이 그것이다. IMF 당시, 정부당국은 IMF가 바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경제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IMF의 구조조정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나오지 않았고 양극화와 성장동력 약화라는 엉뚱한 신행불균형이 IMF 이전의 구형불균형을 대체하고 말았다. GDP 성장률이 금년 들어 많이 개선되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예상외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사회를 보아도 한국에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많다. 정신질환자, 자살자가 많아졌다. 제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젊은 부모,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 기러기 엄마,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한미 FTA, 모두 예사가 아니다. 아! 한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상(異常)이 일상화되는 나라가 돼서야 되겠는가. **人間**



핵심인재는 성과로 말합니다

귀사의 성과는
앞서가는 인재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LMI는 70여개국에서 40여년 동안 검증된 리더십 프로그램의 명품입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귀사의 핵심 인재를 거듭나게 하는
변화를 위한 인간과학.
보이지는 않지만, LMI의 검증된 노하우와 성실성이 있습니다.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장정 선수 LPGA 웨그먼스 우승

작지만 강하다. 장정! 그리고 중소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은행 -
기업은행과 함께 성공하십시오.

장정우승 이벤트

- 장정우승 축하적금 2006. 8. 31까지
- 0.2% 추가금리 제공
- IBK 퀴즈 이벤트(당행 홈페이지 참조)
- 장정사인 모자 증정(2,000명 추첨)
- 환전사은행사 2006. 7. 31까지
- 최고 80% 환율 우대
- 해외여행보험 무료 가입(최고 5억원)
* 300불 이상 환전고객
- 국제전화 무료이용 쿠폰(3,000원)